

## 한국남녀의 관계적 자아의 특성: 다원적 구성요인 탐색 및 타당성 분석

김 지 경<sup>†</sup>                      김 명 소  
연세대 인간행동연구소       호서대 경상학부

본 연구는 최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관계적 자아(relational self)에 대한 연구로서 두 가지 목적에서 출발하였다. 첫째는 한국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계적 자아의 의미와 구성요인들을 탐색하고, 남녀가 과연 관계적 자아해석의 내용에 있어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이다. 두 번째는 관계적 자아의 구성요인들에 대한 구성개념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관계적 자아 척도를 구성하고 남녀차이분석과 함께 관계적 자아와 관련된 척도(상호의존적 자아해석척도와 성역할정체감 척도)와의 관계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설문과 FGI(Focused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여 관계적 자아의 특성들을 파악하고 그 유사성에 따라 내용분석을 한 결과, 관계적 자아를 구성하는 하위요인이 크게 두 가지 차원, 즉, 도구성과 표현성이며 남성의 경우 도구성이, 여성의 경우 표현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밝혀내었다. 설문과 FGI 내용을 바탕으로 각 차원을 측정하는 문항들을 구성하였으며, 이 척도를 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전국을 대표하는 표본 1503명에게 실시하였다. 각 척도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도구성은 실리성, 독자성, 주도성, 유능성, 주체성과 같은 요인들로 구성되었고, 표현성은 공감성, 의존성, 배려, 수동성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도구성과 표현성에 대한 남녀 차이를 분석한 결과, 예컨대대로 각각의 요인별로 남녀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 대체적으로 도구성 차원에서는 남성이 높았고, 표현성 차원에서는 여성이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한편, 기존의 연구에서 관계적 자아척도로 자주 사용되어 온 Cross(2000)의 상호의존적 자아해석 척도에서는 남녀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집합주의 문화의 특성이 강한 우리 사회는 남녀 모두에게 타인과의 관계성이 중요한 자아구성 요인임을 짐작하게 하였다. 위와 같은 두 연구 결과는 관계가 남녀 모두에게 중요하지만 관계성의 의미나 관계성에 대한 기대, 유지 방식 등에 있어 남녀가 다름을 보여주고 있다. 또 Cross의 상호의존적 자아해석 척도는 본 연구에서 개발된 도구성과 표현성 척도 중 표현성 차원과 관련이 높았고 도구성 요인들 중에서는 유능성과 상관이 높게 나타났다. 성역할 정체감 척도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기대한 바와 같이 여성성 점수와 표현성간에 그리고 남성성 점수와 도구성간에 높은 상관이 나타나 남성과 여성이 보이는 관계적 자아의 차이가 성역할 사회화와 관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외에 연구의 제한점과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관계적 자아, 표현성, 도구성, 성역할 사회화, 상호의존적 자아해석

\* 이 논문은 2002년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2-074-HM1016)

†교신저자 : 김지경,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 연세대학교 인간행동연구소, E-mail : adel332@hanmail.net

자아(self)가 무엇이고 어떻게 발달하는지에 대한 관심은 인문사회과학의 오랜 연구주제이며 관심사였다. 심리학이 철학으로부터 전개되었듯이 자아에 대한 철학적 관심은 심리학에서도 이어졌으나 자아에 대한 연구는 엄격하게 통제된 연구실 상황에서 쉽게 연구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에 과학적인 연구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세기 들어 Cooley(1902), Mead(1934), Dewey(1916) 등에 의해 그 개념은 다시 활기를 찾기 시작했고 1980년대에 특히 폭발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자아는 개인들이 갖고 있는 내면적, 외형적 특성 그 자체와 그에 대한 자기의 관념을 포함하는 것으로 영속성과 순간성을 모두 포함하는 역동적 개념이다(Markus & Wurf, 1987). 뿐만 아니라 자아는 인간행동의 여러 측면들을 통제하는 강력한 요인으로서 자기 자신 뿐 아니라 타인에 대한 지각, 기억, 추론을 이끈다(Banaji & Prentice, 1994; Greenwald & Pratkanis, 1984). 이제까지의 심리학적 연구들은 주로 타인과 구별되는 내적이며 개인적인 요소들로 구성되는 자아에 초점을 두어왔고 자아에 있어서의 사회적, 관계적 요소는 중요하게 거론되어오지 않았다. 자아는 분명 각 개인에게 고유하고 독특한 것일 수 있지만 동시에 사회적 산물이다. 그러므로 사회 문화적 요소가 개인의 자아에 영향을 미쳐 문화에 따라 서로 다른 자아의 특성이 생겨난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이러한 자아형성에 미치는 문화의 영향을 주목하고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심리학에서 그리 오랜 일은 아니다. 서구사회가 타인과 구별되고 독립된 존재로서의 자기관을 강조하고 지지하는 독립적 자기개념을 갖는 반면 동양 사회는 개인은 타인과 연결되어 있으며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상호의존적 자기개념을 갖고 있다고 설명한 Markus와

Kitayama(1991)의 연구가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듯이 개인의 자아관은 그 사회가 갖고 있는 문화적 특성, 즉 개인주의(individualism)와 집단주의(collectivism)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동서양의 문화적 차이가 그 사회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쳐 서로 다른 특성의 자아를 갖게 만드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한 사회의 사회문화적 특성은 남녀에게 서로 다른 역할과 지위를 부여하고 그에 알맞은 특성을 갖도록 사회화시키므로써 남녀는 서로 다른 내용의 자아를 갖게 된다고 설명할 수 있다. 실제로 사회문화적 영향으로 서로 다른 자아가 형성된다면 남녀의 자아와 그에 대한 해석의 차이는 그 사회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함과 동시에 남녀간의 특성과 행동에 있어서의 많은 성차를 설명하는데 유용한 개념이며 동시에 가장 강력한 설명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Markus & Oyserman, 1989; Surrey, 1991).

#### 독립적 자아와 상호의존적 자아

집단주의 문화는 상황의존적이고 관계중심중심적인 인간관을 갖고 있고 결과적으로 상호의존적 자기(interdependent self) 및 집단적 자기(collective self) 개념을 갖도록 만든다. 반면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개인이 사회의 근본요소라고 보고 상황유리적이고 개인중심적인 인간관을 갖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독립적 자기(independent self) 또는 사적 자기(private self) 개념이 우세하다. 관계중심적 인간관에서는 인간을 기본적으로 타인에게 의존하고 있는 존재로 보므로 사회행위의 원동력을 관계 속에 내포된 역할과 타인에의 관심과 배려에서 찾게 되고 결과적으로 관계 속에서의 조화추구가 사회행위의 근본적 목표가 된다. 반면 개인중심적 인간관에서는 독립적인 인간에게서 사회행위의 원

동력을 찾고 따라서 개인의 자율성과 독특성 추구가 사회행위의 근본 목표이다.

서구와 비교하여 동아시아의 사회구성원들은 더 상호의존적이고 관계적인 자아를 구성하고 있음이 여러 비교문화심리학적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Hofstede, 1991; Triandis, 1995). Markus와 Kitayama(1991)는 이와 같은 자아유형을 상호의존적 자아해석(interdependent self-construal)이라 불렀고 이와 비교하여 개인의 독특한 특성과 능력, 타인과 구별되는 존재로서의 자기에 초점을 두는 자기정의를 독립적 자아해석(independent self-construal)이라고 불렀다. 여기서 말하는 자아해석(self-construal)이란 타인들과의 관계와 타인들과 구별되는 자아에 대한 생각, 느낌, 행동들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결과적으로 서유럽의 인간관을 중심으로 한 심리학 이론에서는 개인적이며 자율적이고 타인이나 사회의 영향으로부터 비교적 독립적인 인간관을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 이러한 독립적 인간관은 서구사회에서 여성보다는 남성을 기술하는데 더 많이 이용되어 왔다(Gilligan, 1982; Jordan & Surrey, 1986; Sampson, 1988; Stewart & Lykes, 1985). 여러 사회적 문화적 제도적 환경요인들이 남성에게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여성에게는 상호의존성과 관계성의 발달을 증진시켜온 것이다(Bakan, 1966; Maccoby, 1990; Markus & Oyserman, 1989).

Cross 등(1997, 2002)은 남성은 일반적으로 독립적인 자아해석을 하는 반면 여성은 상호의존적 자아해석을 한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동양사회와 같은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자아해석이 상호의존적인 반면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독립적 자아해석이 우세할 것이라고 예견하였다. 만일 이러한 견해가 타당하다면 우리나라 여성들은 서구의 여성들보다 더 상호의존적인 자아해석양식을 가

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가족중심적이고 관계중심적인 우리문화의 특성이 여성으로 하여금 좀 더 관계지향적이며 상호의존적인 자아해석을 발달시켰을 것이기 때문이다. 최상진(2001)은 한국인의 자아는 자신에게 고유한 실재하는 것을 찾고 구성하기보다는 사회적으로 규범화된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심성과 가치를 내면화시키고 실천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즉 한국의 여성들은 사회가 부여한 역할(아내, 며느리 어머니)로서 자신을 정의하고 자신의 자아를 그런 역할에 중점을 두어 해석해낼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한국의 여성의 경우 남편의 사회적 지위나 성공여부, 자녀의 성공 등이 자신의 자부심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또 우리사회가 전반적으로 집단주의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때 한국의 남성은 남성들이 독립적 자아해석의 양식을 가지고 있으리라는 일반적인 기대와 달리 우리문화는 관계성을 강조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독립적인 자아해석양식과 상호의존적 자아해석양식이 공존하는 복합적 양상을 띠는 가능성이 있다.

#### 남녀의 사회적 역할과 관계적 자아

사회문화적 요인들이 개인의 자아형성에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들은 아들보다는 딸과 더 많이 감정을 나누고 그렇게 함으로써 느낌과 감정의 중요성을 딸에게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Dunn, Bretherton, & Munn, 1987; Fivush, 1992). 가정 내에서도 딸에게 아이돌보기와 같은 일을 더 많이 시키며 아들들에게는 밖에서의 독립성과 자유가 더 많이 허용된다(Goodnow, 1988; L. W. Hoffman, 1991; Huston, 1983). 사내아이들은 또래집단과의 상호작용에서도 더 경쟁적이고

거친 행동을 많이 하며, 여자들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과 협력 친밀감에 기초한 행동을 더 많이 한다(Maccoby, 1990). 뿐만 아니라 결혼 후에도 자녀 양육의 일차적 책임은 여성에게 주어지므로 여성은 남성보다 돌봄과 관계성을 더 많이 발전시키게 된다(Chodorow, 1978; Eagly, 1987).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여성은 남성보다 훨씬 더 타인지향적이고 관계지향적인 자아를 갖게 된다.

여러 여성주의 이론가들도 이와 같은 점을 기술하면서(Chodorow, 1987; Dinnerstein, 1976; Gilligan, 1982; Miller, 1986), 관계가 여성의 삶에서 중심을 이루고 힘을 가지나 대부분은 인식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Miller(1986)는 여성 심리의 중요 특징은 끊임없이 타인의 존재나 타인의 기대를 자각하고 반응을 보이는 것이라고 말한다. Chodorow(1972)와 Erikson(1968), Gilligan(1982)등에 의하면 여성은 집합주의적, 사회중심적, 친교적 연결적인 자아도식을 가지고 있는 반면 남성들은 개인주의적, 자아중심적, 분리적인 자아도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인다. 연결적 자아도식에서는 특히 타인에 대해 민감하고 반응적이며 타인에 대한 이해와 타인에 대한 지식이 포함되어 있다. 연결적 자아도식의 요소는 관계이기 때문에 타인은 자아와 함께 표상(representation)되고 자아에 대한 생각을 할 때 타인들 역시 함께 인출된다. 대상관계 이론가들은 이러한 타인을 내면화된 대상이라고 불렀다. Markus 와 Cross(1990)도 여성은 사회적 상호작용과 인간관계 경험의 양상이 남성과 다르기 때문에 자아체계의 유형이 남성과는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 남녀의 성 역할 고정관념 특성과 관계적 자아

성 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연구에서 Broverman

등(1972)은 성(sex)과 연합되어 있는 두 가지의 분명한 특성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전형적인 남성의 특성으로 생각되는 도구적 차원(instrumental dimension)과 전형적 여성의 특징으로 인식되는 정서적 차원(affective dimension)이 그것이다. 도구성은 능동적, 객관적, 독립적, 공격적, 직접적, 지배적, 비정서적, 유능한 등과 같이 세상을 효과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개인의 특성을 포함한다. 반면 정서성은 따뜻한, 민감한, 표현적인과 같은 정서적 특징과 수동적, 감정 이입적, 의존적인과 같이 타인에게 관심을 갖고 양육적이며 타인을 돌보는데 적합한 개인의 특성들로 구성된다. 이러한 결과는 이후의 연구(Deaux & Lewis, 1984)에서도 나타났다.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남녀의 특성을 구분한 것을 보면 Parsons(1955)는 성별분업체계에서는 남편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도구적 역할을 하고 아내는 가사와 자녀양육 그리고 가족의 정서적 유대를 관장하는 표현적 역할을 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Parsons는 남성들은 과제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도구적 행동을 하게 되었고 여성들은 사회정서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표현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고 보며, Spence와 동료들(1978)은 성 고정관념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남성의 도구성, 여성의 표현성 이라고 보았다. Eagly(1987)도 남녀에 대한 고정관념은 사회가 전형적으로 요구하는 사회적 역할 때문에 비롯되었다고 보면서 여성들은 양육의 역할을 담당하므로 친화성(communion)을 소유하게 되고 반면 남자들은 경제적 역할을 담당하므로 주도성(agency)을 소유하게 되었으며 그것이 고정관념의 내용을 이루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Bakan (1966)은 여성과 남성이 생명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두개의 기능을 분리해서 소유하고 있다고 보았는데 그에 따르면 남성은 기능성

(agency)을, 여성은 친화성(communion)을 갖게 된다. 기능성이란 자신 및 자신의 목표에 대한 관심과 관계가 있고 생명의 자기보존, 분리, 통제라는 특성을 가리키며 친화성은 자신과 타인간의 관계에 대한 관심 즉 타인과 함께 있는 것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나 협력이라는 특성을 가리킨다.

이러한 설명 등을 토대로 여성과 남성은 관계 지향적인 정도에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관계를 형성하는 목적이나 관계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내용, 관계를 형성 유지하는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즉 여성은 타인과의 관계가 자신의 자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담담해온 사회적 역할로 인해 갖게 된 특성이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할 때에도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여성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정서적 유대감을 중요시하며 타인의 정서적 반응에 민감하고 관계에 의존적인 양상을 나타낼 것이다. 반면 남성은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도구적 특성을 나타내 관계에서 오는 실제적 이득이라는 측면을 중요시 할 것이며 관계에 의존하기보다는 독립성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 연구목적 및 문제

개인의 자아를 구성함에 있어 타인과의 관계가 갖는 의미나 중요성에 있어 동서양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은 어느 정도 타당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남성과 여성의 자아역시도 이러한 타인과의 관계가 갖는 중요성과 의미에 의해 서로 다르게 형성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그러나 실제로 남성과 여성의 자아에 관계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그리고 어느 정도로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

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로 관계적 자아라는 측면에서 남녀가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측정된 상호의존적인 자기해석이라는 내용 외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관계성의 내용과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학연, 지연 등의 인간관계가 큰 영향을 미치며 다양한 관계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을 정의하는 정도에 있어서는 남녀간에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고 오히려 관계성을 구성하는 내용에 있어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 남성과 여성에게 있어 타인과 맺는 관계는 서로 다른 이유로 중요할 수 있고 그런 관계를 통해 기대하는 바와 관계를 해석하는 내용이 서로 다르리라고 추측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계적 자아를 구성하는 하위요인들을 암묵적, 탐색적으로 밝히고 실제로 그러한 요인들이 남녀간의 차이를 설명해줄 수 있는지를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 밝혀진 관계적 자아의 구성요인들의 타당성을 검증해 보기 위해서 남녀간에 나타나는 관계적 자아의 서로 다른 내용적 측면이 상호 의존적 자아해석 양식(Cross, 2000) 및 성역할 정체성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 및 가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인이 생각하는 관계적 자아의 구성요인들의 내용은 무엇인가? 한국의 여성과 남성은 다른 관계적 자아해석 양식을 갖고 있는가? 또 세대간 관계적 자아해석 양식의 차이는 있는가? Cross등(1997, 2002)은 남성은 일반적으로 독립적인 자아해석을 하는 반면 여성은 상호의존적 자아해석을 하고 서구 개인주의와 달리 동양 집단주의문화에서 자아해석이 더 상호의존적일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그러나 우리사회가 점차 개인주의화되어가고 남녀의 성별 분화 역시 점차 감소해가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면 남녀간의 자아해석에 있어 전반적인 차이는 나타나겠지만 세대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젊은 세대일수록 독립적 자아해석양식을 갖으며 자아해석양식에 있어서의 성차가 적을 것이고 나이든 세대일수록 상호의존적 자아해석양식을 나타내며 성차가 클 것이다.

둘째, 관계적 자아의 구성요인들은 이와 관련된 변인들인 상호 의존적 자아해석양식(Cross의 관계적 자아) 및 성역할 정체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만일 본 연구에서 밝혀진 관계적 자아의 구성 요인들이 타당하다면 기존의 관계적 자아 개념, 즉, 자아해석 양식(Cross, 2000)과 어떤 방식으로든지 관련이 있을 것이며 성 역할 정체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여성의 경우 관계적 자아특성은 성 역할 특성 중 여성성과 관련이 있을 것이며 남성의 관계적 자아특성은 남성성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즉, 관계적 자아의 구성요소들 가운데서도 남성성, 여성성과 관련있는 요인들이 서로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 방 법

### 조사대상자

본 조사의 조사대상자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배경을 표로 정리한 것은 표 1과 같다.

### 조사도구

### 상호의존적 자아해석 척도

관계적 자아를 측정하는 하나의 도구로서, 또 본 연구에서 개발된 관계적 자아 척도의 구성개념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사용될 도구로서 Cross(2000)의 상호의존적 자아해석(interdependent self-construal)척도를 변안하였다. Cross는 이 척도를 만들면서 기존의 독립적/상호의존적 자아해석 척도와 차별성을 지적하고 있는데 기존의 독립적/상호의존적 자아해석 척도가 집단주의에 기반한 관계성을 측정하는 반면에 그녀의 것은 친밀한 개인적 관계에 기초한 관계성을 측정하는데서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Cross(2000)가 구성한 척도의 내용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과 자신을 얼마나 동일시하는가, 그러한 존재가 나를 정의함에 있어 어느 정도 반영되는가를 측정하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문항의 예를 들면 ‘누군가와 친밀해지면 나는 그 사람과 강한 일체감을 느낀다’ ‘나와 절친한 사람이 성공하면 나도 대단한 자부심을 느낀다’와 같은 문항들이다. 즉 이런 문항들에서 높은 점수를 보이는 것은 자기개방성의 정도가 강하고 친근한 관계에 몰입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관계적 자아의 강도’로 해석하려고 하였다. Cross의 척도는 총11문항으로, 단일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보고된 신뢰도는 .88이었다. 먼저 11개의 문항을 우리말로 옮기고 그 내용을 심리학전공 대학원생인 이중국어 사용자가 검토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대학생 265명을 대상으로 한 예비조사의 결과도 단일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신뢰도는 .7397이었다. 그러나 Cross(2000)의 연구와는 달리 상호의존적 자아해석 점수에 있어 남녀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물론 예비조사의 결과가 대학생남녀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정확히 전집을 대표하는 결과라고 보기 어려웠으나 실제로 문화적 차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남녀

표 1. 조사대상자(1503명)의 인구 사회학적 배경자료

전체		1503		거주지역	서울	720	(47.9)
성별	남	727	(48.4)		인천	148	(9.8)
	여	775	(51.6)		부산	222	(14.8)
연령	20-29세	336	(22.4)		광주	76	(5.1)
	30-39세	329	(21.9)		대전	80	(5.3)
	40-49세	329	(21.9)		춘천	30	(2.0)
	60-64세	172	(11.4)	직업	학생	185	(12.3)
결혼상태	미혼	348	(23.2)		자영업	322	(21.4)
	기혼, 동거	1106	(73.6)		영업직	98	(6.5)
	이혼	9	(.6)		사무직	267	(17.7)
	별거	1	(.1)		생산직	72	(4.8)
	사별	39	(2.6)		전문직 및 관리직	52	(3.4)
자녀수	없음	365	(24.3)		무직	40	(2.7)
	1명	178	(11.8)		시간제	59	(3.9)
	2명	683	(45.4)		기타	50	(3.3)
	3명	186	(12.4)				
	4명이상	74	(4.9)				
학력	고졸이하	742	(49.4)				
	전문대졸	176	(11.7)				
	대졸	555	(36.9)				
	대학원이상	29	(1.9)				

는 상호의존적 자아해석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고 판단되어 우리나라 사람들의 관계적 자아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 관계적 자아의 표현성 및 도구성 척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계적 자아의 내용을 파악하고 남녀간에 예측되는 관계적 자아의 내용상의 차이를 측정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대학생 집단(남자 145명, 여자 120명)을 대상으로 개방형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질문의 내용은 가장 의미있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사람은 누구이며 그러한 관계가 왜 중요하고 의미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상적인 관계의 유형은 어떠한 것인지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에 대한 응답이 20대의 대학생 집단에 한정된 것이기에 2차로 FGI(Focused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여 관계적 자아의 구성요인을

구체적으로 탐색하였다. FGI는 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전국적으로 지역과 학력, 직업을 대표하는 30대, 40대, 50대의 남녀 각20명씩 총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질문의 내용은 그들이 살면서 어떠한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러한 관계가 어떤 측면에서 중요하며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등으로 구성되었다. 또 자신이 속해있는 여러 모임에서 느끼는 타인과의 관계에 대해 질문하였다.

설문과 FGI를 통해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측면으로 부각된 것이 남성의 경우 타인과의 관계에서 실제적인 이득을 강조하는 실리적 측면,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으려는 유능성 요인, 타인과의 관계성에서도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유지하려는 독립성 요인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여성에게서 특징적으로 드러난 것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정서적으로 공감받고 지원받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며(공감성) 타인에 대한 배려가 많고(배려) 관계에 많이 의존하는 경향(의존성)이 많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요인들은 여성과 남성의 성 고정관념을 설명하는 도구성과 표현성의 내용(Broverman, 1972)과 상당 부분 일치하였다. 대학생조사와 FGI 결과 밝혀진 도구성과 표현성 특성들을 중심으로 각각 23문항, 22문항을 개발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에서 표현성 문항들과 도구성 문항들의 신뢰도를 산출한 결과, 각각의 요인별 신뢰도지수는 .7375, .7576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 성 역할 정체성 척도

성 역할 유형을 측정하기 위하여 정진경(1990)의 한국형 성 역할 질문지(Korean Sex Role Inventory)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BSRI(Bem Sex Role Inventory)의 개발 과정을 모델로 하여 같은

방법으로 개발한 한국형 성 역할 질문지로 남성성을 측정하는 20개의 항목과 여성성을 측정하는 20개의 항목, 특성이 갖고 있는 긍정성을 측정하는 20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문항들이 얼마나 자신을 잘 표현하는지를 생각하여보고 6점 척도에 응답하게 하였다. 여성성 점수와 남성성 점수는 상호 독립적이며 계산과정에서도 독립적으로 산출된다. 본 연구에서는 Spence 등(1975)의 방법을 따라 여성성 점수와 남성성 점수를 기준으로 중앙치 분리(median split) 방법을 사용하여 성역할 정체성을 여성성, 남성성, 양성성, 미분화로 구분하였으며 다른 변인들과의 관계성을 살펴보았다.

## 결 과

### 상호의존적 자기해석: 관계적 자아의 강도

먼저 우리나라 남녀가 관계지향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Cross(2000)가 개발한 상호의존적 자기해석 척도를 번안해 사용한 문항들을 분석하였다.

Cross가 만든 11개의 문항에 대한 본 조사의 신뢰도는 .77로 나타났으며 요인분석 결과 1요인으로 나타났다. 11개 문항의 총점을 구하고 이를 연령별 남녀별로 나타낸 것이 표 2에 제시되었다. 이 점수를 가지고 성(남, 녀)과 연령을 요인으로 한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성(남녀)에 따른 주효과는 없었으며 연령에 따른 주효과만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F(1, 1481)=3.547, p<.01$ ). 연령변인을 가지고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 60대는 20대( $p=.007$ ), 40대( $p=.024$ ), 50대( $p=.008$ )와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을



표 2. 연령에 따른 남녀별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의 평균 및 표준편차

	남	여
20대	43.24(6.42)	43.55(6.20)
30대	42.90(5.89)	42.63(5.97)
40대	43.85(5.28)	42.58(5.72)
50대	43.39(5.88)	43.42(5.65)
60대	41.15(5.64)	42.02(5.22)

가지고 있다는 결과(Cross, 2000)와는 다른 것으로 우리나라는 남녀구분 없이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형성이 중요하며 친밀한 관계가 자신을 정의 하는데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비교적 사회적 관계가 적어지며 중요성이 감소하는 60대를 제외하고는 상호의존적 자기해석의 차이는 없음을 알 수 있다.

#### 관계적 자아의 도구성과 표현성

##### 관계적 자아의 구성요인에 대한 요인분석

먼저 45개의 문항을 대상으로 도구적 문항과 표현적 문항을 나누어 탐색적 요인분석을 하였다. 요인분석모형은 공통요인모형이었고 기초구조의 추출방법은 주축분해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요인의 해석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직교회전(varimax rotation)방법을 사용하였다. 기초요인분석의 결과에서 스크리 검사, 고유치, 누적분산비율과 내용 해석가능성을 고려하여 도구적 차원은 5요인, 표현적 차원은 4요인을 추출하였다. 관계적 자아의 표현성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를 살펴보면(표 3), 요인 1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정서적 지원과 공감, 조화를 중요시하는 내용을 반영하는 7개의 문항으로 묶였다. 따라서 이것을 ‘공감성’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2는 행동이나 의사결

정시에 타인을 의식하거나 따라하는 경향성을 나타내는 6개의 문항으로 ‘수동성’으로 명명하였다. 요인3은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나타내는 5문항으로 ‘배려’라고 명명할 수 있다. 4요인 3문항은 친밀한 관계에 대한 의존성향을 나타내 ‘의존성’으로 명명하였다.

각각의 요인별 설명변량은 22.383%, 8.445%, 7.514%, 5.250%로 나타났다. 본 척도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의 내적 일치도 계수를 산출한 결과, 표현성 전체문항을 대상으로 한 신뢰도 지수는 .82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도구성 차원 문항들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두 5개의 요인이 도출되었다(표 4).

1요인은 관계에서 실제적인 도움과 이득을 얻으려는 경향성을 반영하고 있어 ‘실리성’이라고 명명하였다. 2요인은 관계를 형성하거나 유지할 때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주도성’이라고 명명하였다. 3요인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비교적 독자적이고 개별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행동하려는 경향성을 나타내는 4개의 문항으로 ‘독자성’이라고 명명하였다. 4요인은 인간관계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으려는 욕구를 반영하고 있는 문항으로 ‘유능성’이라 명명하였다. 5요인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려는 의도를 나타내 ‘주체성’이라 명명하였다. 도구성 요인의 전체 문항간 신뢰도는 .79였으며 각 요인별 설명변량은 20.668%, 10.044%, 7.905%, 6.957%, 6.048%이었고, 전체 설명량은 51.622%였다.

##### 관계적 자아의 하위구성요인들 간의 상관관계

관계적 자아의 하위구성요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기대한 바대로 표현성 및 도구성 각각의 하위 요인들 간 상관성이 높았

표 3. 관계적 자아의 표현성 문항 요인분석결과

	공감성	수동성	배려	의존성
나와 친한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먼저 감정을 깊이 헤아려 주는 것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b>.69</b>	.03	.08	.18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인간관계는 서로가 많은 것을 같이 느끼고 나누는 관계이다.	<b>.68</b>	.08	.03	.12
나는 내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의 기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신경을 많이 쓴다.	<b>.54</b>	.25	.17	-.12
나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공감해 주는 편이다.	<b>.53</b>	.10	.47	-.08
내가 속해 있는 집단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b>.46</b>	.09	.36	-.12
나에게 좋은 관계란 실제적 도움보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존재이다	<b>.44</b>	.08	.19	.00
나와 친밀한 사람이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b>.32</b>	.11	.30	.08
나는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 내가 의견을 내기보다는 그들의 의견을 따르는 편이다.	-.03	<b>.72</b>	.05	.13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데 내 생각보다는 중요타인의 의견에 따른다.	-.09	<b>.63</b>	.06	.22
나는 친구가 기분나빠 할까봐 하고 싶은 말을 못하는 때가 많다.	.19	<b>.61</b>	.04	.04
나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음식이라도 친구들이 먹으러 가면 그냥 따라가는 편이다.	.25	<b>.54</b>	.11	-.06
나는 말과 행동을 할 때 타인에게 어떻게 비춰질까를 항상 생각하고 말과 행동을 한다.	.37	<b>.49</b>	.05	.08
나는 타인과 함께 있을 때 내 기본대로 행동하기보다는 타인의 기분에 맞춰 행동한다.	.24	<b>.47</b>	.33	-.06
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시간을 잘 낸다.	.14	.01	<b>.66</b>	.22
나는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준다.	.24	.06	<b>.64</b>	-.00
나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내 것처럼 느낀다.	.17	.05	<b>.57</b>	.29
나는 내가 속한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나의 이익을 희생할 수 있다.	-.04	.15	<b>.50</b>	-.07
나는 사람들간의 관계에서 생기는 갈등을 풀어주는데 관심을 가지고 애쓰는 편이다.	.40	.09	<b>.41</b>	.08
나는 어려울 때 친구에게 많이 의지한다.	.06	-.05	.16	<b>.73</b>
나는 어려울 때 이웃에 많이 의지한다.	-.14	.11	.16	<b>.71</b>
나는 매사에 친한 사람에게 많이 의존한다.	.28	.19	-.08	<b>.67</b>
고유가	4.70	1.78	1.58	1.10

다. 도구성 하위 요인들 간에는 특히 실리성과 유능성 및 독립성과 상관성이 가장 높았고 실리성과 주체성과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한 표현성 하위 요인들 간에서는 공감성이 배려와 수용성과 가장 높은 상관을 나타내었으며, 의존

성과는 상대적으로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의존성 요인이 다른 관계적 요인들과 가장 낮은 상관 패턴을 나타냈으며, 특히 독립성 및 유능성과 낮은 상관을, 주체성과는 역상관을 보이고 있다. 두 관계성 하위 요인들 간

표 4. 관계적 자아의 도구성 문항 요인분석결과

	실리성	주도성	독자성	유능성	주체성
나는 나를 깊이 이해해주는 소수의 사람을 사귀기보다는 조그만 도움이라도 줄 수 있는 많은 사람을 사귀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b>.71</b>	.13	.18	-.05	.02
내가 곤경에 빠졌을 때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친구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가 낫다고 생각한다.	<b>.67</b>	.05	.24	.03	-.09
몇몇 사람과 깊은 사귀기를 갖기보다 내 경력과 장래를 위해 폭넓은 인간관계가 내게 더 중요하다.	<b>.64</b>	.14	.04	.17	-.02
나는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받는 인간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b>.56</b>	-.02	-.03	.39	.11
나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인간관계보다는 뭔가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인간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b>.46</b>	.04	.02	.05	.08
나는 모임에서 분위기를 주도하는 인물이다.	.09	<b>.75</b>	-.01	.11	.07
나는 어디에서나 분위기를 잘 살린다.	.17	<b>.73</b>	-.06	-.01	.09
나는 인간관계에서 내가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을 좋아한다.	.03	<b>.61</b>	.31	.24	.05
나는 여러 사람과 일하기보다는 나 혼자 일을 하고 인정받거나 칭찬 받는 일이 더 좋다.	.11	.20	<b>.60</b>	-.03	-.03
나와 친밀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과 나는 별개의 존재라는 생각이 든다.	.03	-.05	<b>.59</b>	.14	-.05
내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인간관계는 서로가 독립적인 관계이다.	.23	.07	<b>.58</b>	-.03	-.01
나는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기보다 스스로가 독립적으로 행동한다.	-.05	-.03	<b>.52</b>	.33	.28
개인적인 문제를 친구들과 상의하는 것보다 혼자 해결하는 것이 더 낫다.	.32	-.17	<b>.48</b>	-.02	.33
인간관계를 잘하는 것도 하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며 사람들을 대한다.	.11	.06	.07	<b>.74</b>	-.01
나는 인간관계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느낀다.	.06	.31	.20	<b>.66</b>	-.00
나는 무슨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않는 편이다.	.10	-.05	-.06	-.03	<b>.80</b>
대다수의 사람들과 의견이 다를 경우에도, 내 의견을 분명히 말하는 편이다.	-.01	.43	-.01	.12	<b>.62</b>
내 의견이 비록 다른 여러 사람들의 의견과 반대되는 경우에도, 나는 내 의견이 옳다고 확신한다.	-.05	.27	.30	.04	<b>.42</b>
고유가	3.64	1.71	1.39	1.19	1.05

의 상관을 살펴보면, 유능성과 공감성이 가장 높은 관련성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주도성과 배려, 그리고 유능성과 배려 순으로 상관이 높았다.

**관계적 자아의 표현성과 도구성 요인에서 남녀차이**  
 관계적 자아를 구성하는 요인을 표현성과 도

표 5. 관계적 자아의 도구성 및 표현성 하위요인들 간의 상관관계

	실리성	주도성	독립성	유능성	주체성	공감성	수용성	배려	의존
실리성	1.00								
주도성	.26**	1.00							
독립성	.36**	.19**	1.00						
유능성	.36**	.32**	.28**	1.00					
주체성	.16**	.31**	.21**	.16**	1.00				
공감성	.35**	.29**	.30**	.53**	.16**	1.00			
수용성	.41**	.13**	.31**	.27**	-.00	.41**	1.00		
배려	.29**	.49**	.25**	.42**	.23**	.57**	.40**	1.00	
의존	.15**	.24**	.01**	.09**	-.00	.19**	.24**	.25**	1.00

\*  $p < .05$  \*\*  $p < .01$

구성으로 나누어 볼 때 과연 남녀가 실제로 이러한 관계적 자아의 구성요인에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9개의 요인별로 평균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표 6). 표를 보면, 기대한 바 처럼 대부분의 요인에서 성차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도구성 차원에서는 독자성요인을 제외한

도구성, 주도성, 능력인정, 주체성 요인에서 남성이 높은 점수를 나타내, 남성들은 관계를 통해 실질적인 문제해결이나 도움을 주고받길 바라며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자 한다고 볼 수 있다. 또 관계를 형성하거나 유지함에 있어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하며 타인

표 6. 관계적 자아의 도구성과 표현성 하위요인별 남녀비교

요인	남	여	t	
도구성	도구성	19.26 (3.45)	18.67 (3.35)	3.38**
	주도성	11.17 (2.34)	10.64 (2.40)	4.36**
	독자성	18.44 (3.25)	18.21 (2.99)	1.44
	유능성	8.48 (1.54)	8.29 (1.55)	2.43*
	주체성	11.57 (1.84)	11.25 (1.93)	3.27**
표현성	공감성	24.46 (3.61)	24.85 (3.24)	-2.23**
	수용성	21.66 (3.67)	22.13 (3.57)	-2.49*
	배려	23.38 (3.57)	23.20 (3.41)	1.01
	의존	9.89 (2.40)	10.31 (2.29)	-3.48**

\*  $p < .05$  \*\*  $p < .01$

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도 자신의 주체성을 유지하려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현성 차원에서는 배려요인을 제외한 공감성, 수동성, 의존성 요인에서 유의미한 성별 차이가 나타나 여성들은 관계를 통해 감정적, 정서적 일치감과 유대감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 유지할 때 타인을 많이 의식하고 수동적인 태도를 보임을 알 수 있다. 또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많이 의존한다.

**관계적 자아의 표현성, 도구성과 상호의존적 자아해석 간의 관계**

관계적 자아의 내용인 도구성 5요인과 표현성 4요인이 기존의 관계적 자아를 측정하는 척도로 사용되었던 Cross(2000)의 상호의존적 자아해석

척도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가 표 7에 제시되었다. 상호의존적 자아해석은 대체로 관계성 가운데 표현성 차원과 높은 관계의 패턴을 보이고 있다. 특히 표현성 가운데에서도 공감성 및 배려성 요인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도구성 차원에서는 유능성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으며 독자성이나 주체성과는 낮은 상관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Cross의 상호의존적 자아해석 척도는 실제로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공감성과 배려, 그리고 유능성에 기초한 관계적 자아를 측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성역할 정체감과 관계적 자아**

성역할 정체성과 관계적 자아간의 관계를 살

표 7. 상호의존적 자아해석과 관계적 자아의 구성요인들간의 상관관계

	실리성	주도성	독자성	유능성	주체성	공감성	수용성	배려	의존
상호 의존적 자아	.27**	.29**	.14**	.43**	.14**	.56**	.32**	.48**	.26**

\*\*  $p < .01$

표 8. 성역할 유형의 연령별 성별 분포

		양성성(%)	남성성(%)	여성성(%)	미분화(%)
남성	20대	26.0	28.1	7.5	38.4
	30대	32.9	28.7	10.4	28.0
	40대	37.2	29.9	8.5	24.4
	50대	39.0	29.3	7.9	23.8
	60대	28.4	23.9	9.1	38.6
여성	20대	23.2	22.6	13.2	41.1
	30대	22.4	6.7	28.5	42.4
	40대	24.8	7.3	26.7	41.2
	50대	25.0	11.0	34.8	29.3
	60대	27.4	6.0	32.1	27.4

해보므로써 남녀간에 나타나는 관계적 자아의 하위요인별 차이가 성역할에서 비롯된 것인지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남녀가 자신이 얼마나 남성적이라고 혹은 여성적이라고 지각하는가를 측정하는 성역할 정체감 척도에서 여성성 점수와 남성성 점수를 산출한 다음 중앙분리(median split)법에 의해 여성성, 남성성, 양성성, 미분화의 네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결과를 성별과 연령별로 제시한 것이 표 8이다. 전반적인 양상을 보면 우리나라 남녀 모두에서 미분화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대의 남성과 20, 30, 40대의 여성이 특히 미분화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30, 40, 50대의 남성들은 양성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점도 흥미롭다.

성역할 정체감의 남성성, 여성성 점수와 관계적 자아의 하위요인들 간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 표 9이다. 관계적 자아의 도구성, 표현성 차원의 모든 요인들이 남성성, 여성성 요인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는데, 남성성은 특히 도구성 차원의 주도성과 주체성, 유능성과 높은 상관을 보였으며, 표현성 차원의 의존성이나 수동성과는

가장 낮은 상관을 보였다. 반면 여성성은 표현성 차원의 공감성, 배려, 및 수동성 요인과 높은 상관을 나타냈다. 이 결과를 보면, 본 연구에서 밝혀진 관계적 자아의 도구성 차원은 남성적인 관계적 자아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으며, 또한 표현성 차원은 여성적인 관계적 자아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관계적 자아의 내용을 구성하는 도구적 차원과 표현적 차원에서 나타나는 성차가 우리 사회 남녀의 성역할 특성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성역할에서 비롯되었음을 간접적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다음은 성역할 유형과 관계적 자아의 도구성, 표현성 요인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4가지 성역할 유형별로 도구성 점수와 표현성 점수를 산출한 결과를 표 10과 표 11에 제시하였다. 표현성과 도구성 모두에서 양성성으로 분류된 사람들의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성역할 유형별 점수차이는 유의미하였다. 표현성은 양성성, 여성성의 순으로, 도구성은 양성성, 남성성, 여성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미분화는 관계성의 두가지 차원 모두에서 다른 성역할 유형보다 낮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

표 9. 남성성 여성성 점수와 관계적 자아의 하위요인들간의 상관관계

	실리성	주도성	독립성	유능성	주체성	공감성	수동성	배려성	의존성	남성성
남성성	.22**	.50**	.28**	.31**	.36**	.31**	.11**	.41**	.11**	
여성성	.23**	.19**	.20**	.25**	.16**	.39**	.32**	.39**	.14**	.30**

\*\*  $p < .01$

표 10. 성역할 유형별 도구성 점수

	남성성	여성성	양성성	미분화	F
도구성	69.36	66.73	72.86	63.67	134.45***

\*\*\*  $p < .001$

표 11. 성역할 유형별 표현성 점수

	남성성	여성성	양성성	미분화	F
표현성	78.74	66.73	72.86	63.67	107.06***

\*\*\*  $p < .001$

## 논 의

흔히 여성은 남성과 달리 관계 지향적이며 타인 중심적이라고 알려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관계적 자아 특성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고, 여성과 남성이 자아의 관계성 혹은 상호의존성 차원에서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먼저 미국에서 사용되었던 Cross(2002)의 상호의존적 자기해석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을 해보았다. 그러나 결과는 미국에서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관계적 자아의 정도에서 남녀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실제로 우리나라가 집단주의적 특성을 갖고 있어 타인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여성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녀 모두에게 중요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할 때에도 타인과의 관계성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함축하고 있다.

상호의존적 자아해석척도는 앞서도 지적하였듯이 단일요인으로 관계의 중요성을 측정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남녀에게서 나타나리라 예상되는 관계적 자아의 내용적 측면을 측정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는 내재적(implicit)인 접근 방법으로 설문지와 FGI를 통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관계적 자아의 내용과 하위 구성요인들을 찾아내고 남녀 간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들이 다른지를 밝히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요인 분석 결과 잠정적으로 밝혀진 하위요인은 관계의 도구적 차원을 나타내는 실리성, 주도성, 독자성, 유능성, 주체성의 5요인이 도출되었고, 표현성 차원은 공감성, 수용성, 배려, 의존성의 4요인으로 구성됨을 알 수 있었다.

앞에서의 상호의존적 자아해석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성 차이가 이러한 요인별 성차분석에서는 나타났는데, 실리성, 주도성, 유능성, 주체성

에서는 남성이 더 높은 점수를 나타냈고 공감성, 수동성, 의존성에서는 여성이 더 높은 점수를 나타내 자아의 관계적 측면이 남녀모두에게 중요하지만 그 양상은 다름을 보여주었다. 이것을 해석해보자면 남성은 관계를 설정함에 있어 관계가 가져다주는 실제적 이득과 상호간의 도움이 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인 반면 여성은 관계를 통해 정서적 지원과 공감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남성들은 관계를 맺을 때에도 자기중심으로 주도적인 자세를 취하며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반면, 여성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수동성을 나타내며 친밀한 관계에 많이 의존함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관계적 자아의 내용인 도구성 5요인과 표현성 4요인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기존의 관계적 자아개념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척도인 Cross(2000)의 상호의존적 자아해석 척도와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상호의존적 자아해석은 대체로 본 연구에서 나타난 관계성 가운데 표현성 차원의 하위 요인들과 높은 관계의 패턴을 보이고 있다. 특히 표현성 가운데에서도 공감성 및 배려성 요인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구성 차원 중에서는 유능성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이고 있어, Cross의 상호의존적 자아해석 척도는 실제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공감성과 배려를 보이는지와 자신의 관계적 능력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정도를 측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상호의존적 자아해석 양식 외에 도구성과 표현성의 하위 요인들도 구성된 관계적 자아개념의 구성개념 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성역할 정체성의 여성성, 남성성 요인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예상대로 성역할 정체성의 여성성은 관계적 자아의 표현성 요소와 관련이 높았고, 반면

남성성은 도구성과 관련이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관계적 자아의 내용을 도구적 차원과 표현적 차원에서 나타나는 성차가 우리 사회 남녀의 성 역할 특성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사회적 역할분화로 인해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대체적으로 바람직한 남성성과 여성성을 다 가지고 있는 양성성 성역할 유형을 가진 사람이 관계의 도구적 측면이나 표현적 측면을 다 강하게 드러낸 점이 눈에 띈다. 현 사회가 남성성과 여성성의 조화를 강조하며 ‘양성적인 인간 교육 혹은 양성 평등 교육’을 지향하고 있는 시점에서 본 연구 결과는 관계적 자아의 두 가지 특성 중 어느 것이 더 우월하고 열등하다는 것 보다 두 특성 모두 중요한 특성을 시사해 준다.

본 연구는 문화가 개인의 자아형성에 영향을 미쳐 문화에 따라 서로 다른 자아관이 생기며 같은 맥락에서 같은 문화권 아래 사는 남성과 여성 역시 그들이 맡고 있는 사회적 역할과 지위 등에 따라 서로 다른 사회화의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 결과로 서로 다른 자아해석을 갖게 된다는 가설에서 출발하였다. 남녀가 서로 다른 내용의 자아를 형성함에 있어 중요한 차이는 바로 타인과의 관계형성과 그것이 자신을 형성하는데 얼마나 중요하게 반영되는가 하는 것 일수 있다. 그 동안 여성은 남성과 달리 타인과의 관계가 중요하며 그러한 관계가 자신을 정의함에 있어 중요변수라고 설명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로 우리나라 남녀가 타인지향적이고 관계중심적 특성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봄과 동시에 타인과 맺는 관계성의 내용이 남녀에 따라 다르리라 생각하여 그러한 요인들을 밝히는 시도를 하였다. 예측한대로 관계성을 구성하는 내용은 남녀에 따라 달랐으며 그러한 차이는 남녀가 맡게 되는 사회적 역할에 대한 내면

화(성 역할 사회화의 과정)의 결과임을 추론해볼 수 있었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고 여성에게 있어 일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져가는 추세를 고려해볼 때 앞으로 표현성과 도구성에 있어서의 남녀 차이 패턴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 변화 방향을 예측하고 기술, 설명하는 것은 추후 연구과제의 몫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 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FGI와 설문문을 통해 암묵적 혹은 내재적으로 접근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관계적 자아의 특성을 살펴본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FGI 대상자나 설문 대상자의 수가 제한되어 있어 관계적 자아개념의 구성요소가 포괄적이지 못 할 수 있다. 앞으로 경험적 접근 뿐 아니라 이론적으로도 남녀의 관계적 자아를 구성하는 요인에 대한 지속적이면서 폭넓은 탐색이 필요할 것 같다. 예를 들어 ‘자기개방성’과 같은 요인은 이론적으로 볼 때, 친밀한 관계를 형성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일 수 있어 이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또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할 때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다른 특성과 기대를 갖고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신의 가족이나 친구 등의 친밀한 관계와 직장동료, 선배들의 관계를 동일하게 바라보지 않을 뿐 아니라 각각의 관계에 대한 기대나 대처방식이 다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추후의 연구에서는 관계의 대상을 달리하여 관계적 자아의 내용이 달라지는지를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 관계적 자아가 자아를 구성하고 있는 중요부분이라 간주할 수 있으므로 실제로 관계적 자아라는 요인이 실제의 행동에서 어떻게 반영되어 나타나는지, 또는 자신이 지각하는 관계적 자아의 유형과 타인이 바라보는 자신의 관계성의 유형이 일치하는지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정진경 (1990). 한국 성역할 검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5(1), 82-92.
- Bakan, D. (1966). *The duality of human existence*. Boston, MA: Beacon Press.
- Banaji M. R. & Prentice, D. A. (1994). The self in social context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5, 297-332.
- Broverman, I. K., Vogel, S. R., Broverman, D. M., Clarkson, F. E., & Rosenkratz, P. S. (1972). sex-role stereotype: A current appraisal. *Journal of social Issues*, 28, 59-78.
- Cooley, C. H. (1902). *Human nature and the social order*. New York: Scribner. Craig-Bray (1988)
- Cross, S. E., & Madson, L. (1997). Models of the self: Self-construals and gender. *Psychological Bulletin*, 122(1), 5-37.
- Cross, S., Bacon, P., & Morris, M. (2000). The relational-interdependent self-construal and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4), 791-808.
- Cross, S. E., Bacon, P. L., & Morris, M. L. (2000). The relational-interdependent self-construal moderates the link between consistency and well-being. Manuscript submitted for publication.
- Cross, S. E., Morris M. L., & Gore J. S. (2002). Thinking about oneself and others: The relational-interdependent self-construal and social cogni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2, 399-418.
- Deaux, K., & Lewis, L. (1984). Structure of gender stereotypes: Interrelationships among components and gender lab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 991-1004.
- Dinnerstein, D.(1976). *The Mermaid and the minotaur*. NY: Harper & Row.
- Dunn, J., Bretherton, I., & Munn, P. (1987). Conversations about feeling states between mothers and their young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23, 132-139.
- Eagly, A. H. (1987). *Sex differences in social behavior: A social-role interpretation*. Hilldale, NJ: Erlbaum.
-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W. W. Norton.
- Fivush, R. (1992). Gender-differences in parent-child conversations about past emotions. *Sex Roles*, 27, 683-698.
- Gilligan, C. (1982). *In a different voice: Psychological theory and women's develop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Goodnow, J. J. (1988). Children's household work: Its nature and functions. *Psychological Bulletin*, 103, 5-26.
- Greenwald, A. G. & Pratkanis, A. R. (1984). The self. In J. R. S. Wyer & T. K. Scrull (Ed.), *Handbook of social cognition* (Vol. 3, pp. 129-178). Hillsdale, NJ: Erlbaum.
- Huston, A. C. (1983). Sex typing. In P. H. Mussen & E. M. Hetherington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4th ed., Vol. 4, pp. 387-467). New York: Wiley.
- Hodgson, J. W. & Fisher, J. L. (1979). Sex differences in identity and intimacy development in college youth.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8, 37-50.
- Hoffman, L. W. (1991). The influence of the family environment on personality: Accounting for sibling differences. *Psychological Bulletin*, 110, 187-203.

- Jordan, J. V. & Surrey, J. L. (1986). The self in-relation: Empathy and the mother-daughter relationship. In T. Bernay & D. W. Cantor (Eds.), *The psychology of today's wome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Josselson, R. (1973). Psychodynamic aspects of identity formation in college wome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 3-52.
- Maccoby, (1990). Gender and Relationships: A Developmental Account. *The American Psychologist*, 45(4), 513-511.
- Markus H. & Cross S. E. (1990). The interpersonal self. In L. A. Pervin (Ed.), *Handbook of personality: Theory and research* (pp. 576-608). New York: Guilford Press.
- Markus, H. & Wurf, E. (1987). The dynamic self-concept: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38, 299-337.
- Markus, H.,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 224-253.
- Markus H. & Oyserman, D. (1989). Gender and thought: The role of the self-concept. In M. Crwford & M. Hamilton (Ed.), *Gender and thought* (pp. 100-127). New York: Springer-Verlag.
- Mead, G. H. (1934). *Mind, self, and society*.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iller, J. B. (1986). *Toward a new psychology of women*. (2nd ed.). Boston, MA: Beacon Press.
- Michael, D. & Adams, J.(1990). Reevaluationg the ildentity status paradigm: Still useful after 35 years. *Developmental Review*, Vol. 19, No. 4, 557-590
- Parsons, T., & Bales, R. F. (1955). *Family, socialization and interaction process*. Glencoe, IL: The Free Press.
- Sampson, E. E.(1988). The debate on individualism: Indigenous psychologies of individual and their role impersonal and societal functioning. *American Psychologist*, 43, 115-22.
- Singelis, T. M. (1994). The measurement of independent and interdependent self-construal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0, 580-591.
- Spence, J. & Buckner, C.(1998). Instrumental and expressive traits, trait stereotypes, and sexist attitudes: What do they signify?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 Stewart, A. J., & Lykes, M. B. (1985). Conceptualizing gender in personality theory and research. In A.J. Stewart & M. B. Lykes(Eds), *Gender and personality: Current perspectives on theory and research*(pp.2-13).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 Surrey, J. L. (1991). The "self-in-relation": A theory of women`s development. In J. V. Jordan, A. G. Kaplan, J. B. Miller, I. P. Stiver, & J. Surrey (Eds.), *Women's growth in connection: Writings from Stone Center* (pp. 51-66). New York: Guilford Press.
- Triandis, H. (1995).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Boulder, CO: Westview Press.

1 차원고접수일 : 2003. 9. 4.  
최종원고접수일 : 2003. 10. 28.

## Exploration of the Multiple Structure of Relational Self and Construct Validation among Korean Adults

**Ji Kyung Kim**

**Yonsei University**

**Myoung So Kim**

**Hoseo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was conducted to (1) explore the perceptions of Korean men and women about what is an important relationship for them and how do each gender group construe relational self, and (2) develop the scale to assess the factors of relational self and verify construct validity of the scale. 40 college students and 60 adults participated in survey and FGI (Focused Group Interview) respectively, and content analysis of their responses yielded 2 categories with 39 characteristics of relational self. The one category was named 'instrumentality' which was important to men and the other was named 'expressivity' which was important to women. The list of 39 items was administered to a nationwide sample of 1503 Korean adults to assess their construal of relational self through the 6-point Likert scale. Principal axis factor analysis showed that the two categories were unidimensional with high reliability. As a result of factor analysis on each category, a total of 9 factors were extracted. Specifically, the instrumentality consisted of factors such as utilitarianism, independence, initiativeness, self-assurance, and competence. And the factors of expressivity were empathy, passiveness, dependency, consideration. The tests of mean difference revealed that men had higher scores in most of the instrumental factors, while women had higher scores in most of the expressive factors. But there was no sex difference in the interdependent self-construal scale (Cross, 2000) which has been frequently used for measuring relational self. This is related to the Korean's collective cultural characteristics, and it was concluded that the relationship with others is very important to both Korean men and women, but the meaning and expectation of the relationship as well as the method for its preservation are different to each sex group. In addition, the correlation analyses indicated that the femininity score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expressiveness while the masculinity score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instrumentality. This result implicated the differences of relational self among Korean people were related to the socialization process of each sex, i.e., sex role identity. Finally,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the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key words* : relational self, expressiveness, instrumentality, interdependent self-construal, sex role identity